

## 가정 사역과 교회의 과제

송 길 원 목사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장)

### 들어가는 말

선교 1 세기를 보낸 한국 교회의 변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 성장과 선교 열의가 그렇다. 하지만 외형적인 평가가 아닌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 모색은 끊임없는 한국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옳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선교 백주년의 목회에 대한 반성의 잣대를 그어 보고 싶다. 이러한 구분은 극히 주관적이며 또한 시기 역시 뚜렷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싶다.

선교 초기의 목회는 주로 심방과 전도, 구제에 매달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도원 운동과 부흥회를 상징하는 시기의 목회를 1세대 목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세대 목회는 한결음 더 나아가 제자 훈련과 선교가 강조되면서 목회자의 영성보다는 지도력과 행정력 등의 기능 문제가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치유와 상담, 더 나아가 가정을 목회의 주된 장르로 다루기 시작했다. 즉 교육 목사에 이어 상담 목사와 가정 사역 담당 목사로 그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이를 3세대 목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대응을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현대 사회의 위기 경향과 교회의 역할 반성

환경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은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사람들은 자연을 가꾸기 시작했다. 의식이 깨어 있는 가정들에서는 합성세제를 거부하고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게 되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면서 무공해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지고 보면 최첨단 의료 기술로 정복되지 않고 있는 암(癌)도 기실은 병(病)든 음식을 산(山)더미처럼 많이 먹어(□□□)생긴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세계를 보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아니라 사회 생태계의 파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온통 性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한듯 성 폭행이 예사일이 되어버렸고, 배우자의 외도가 심각하다. 계속되는 이혼율의 증가는 어느새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보도에도 무감각해져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교회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초기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잘 감당해 왔다. 축첩제도 폐지를 앞장섰던 일이며,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노름 추방 운동이 그렇고, 심지어 금주, 금연 운동까지 앞장섰었다. 건전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고 세속 문화를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교회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자아 도취적인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구를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사회 단체가 앞장서고 있고, 교회는 그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 가정 문제에도 예외는 아니다. 매맞는 여성들이 즐비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결식 아동들이 해마다 늘어도 구제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외국 선교는 열을 내지만 국내의 마약 상습 복용자라든지 창녀촌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니 애써서 피해버린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목회자 자신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한국적 상황하에서의 목회는 가정을 내팽개치는 목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신의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과 목회자 가정이 많이 병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목회자 자신의 가정을 건전한 모델로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문화 풍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정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색해 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가정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 자체를 몹시 싫어한다.

거기다 신학교의 문제도 있다. 수십년이 지나도 변할 줄 모르는 보수적 커리큘럼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을 때의 시대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 배우지 않았으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 2. 기업 문화와 목회 환경의 변화

최근 들어 일반 기업의 문화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핵심 사원을 위한 의식 고도화 훈련”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사내의 고충 문제 처리의 90% 이상이 가정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가정 복지” 차원에서 주부 교실과 가정 세미나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사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새 앞서가는 기업들은 인간의 근본적 관심은 승진이나 부의 축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사원들의 기본적 요구를 채워 줌으로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처럼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다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홍콩의 한 패스트푸드 점은 엄청난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여 기업의 변신을 꾀했다. 즉, 바쁜 샐러리 맨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문을 여는 시간을 당기고 상업지가 아닌 주택지를 파고든 것이었다. 매장도 소규모로 바꾸었다.

기업만이 아니다. 미국의 10대 교회를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신자) 지향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마케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곧 목회 환

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사회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시켜 가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이혼율은 이미 서구 사회를 앞지를 태세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고아 수출국 1위국의 오명을 벗고 있지 못하다. 미혼모가 늘고 있고, 너무 많은 부부들이 헤어져 결혼한 독신자로 살아가고 있다. 자녀 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기만 한다. 건잡을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심약한 자녀들이 조그마한 나무람이나 꾸지람에도 쉽게 목을 매단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한 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해답을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다.

홍수가 저서 물이 넘쳐도 마실물이 없어 기근이라는 말이 있다. 꼭 이 시대를 두고 한 말만 같다. 없는 게 없다. 부부 생활에 대한 온갖 전문 잡지들이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들 할 것 없이 풍요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없다. 이러한 사회 진단이 옳은 것이라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교회는 가정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언제까지 일년에 두 차례(어린이, 어버이주일)의 설교로 가정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여기지 않게 될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제라도 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1994년은 U.N.이 정한 가정의 해이다. U.N.은 해마다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선정해 왔다. 가정은 온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존재 기반을 잃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가정을 소홀히하는 시대, 가정이 내팽겨쳐진 세기야말로 이미 종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가운데서도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한국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 본부에서 2천년까지 전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설정한 열 가지 주제 가운데 가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가정으로 돌려야 한다. 레지나 와이먼(Regina Wieman)은 “가정은 지금 길고도 위험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그의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속히 “가정 사역”을 시작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교회 건축만을 주재삼고, 죄책만을 언급하고, 선교만을 강조하다가는 교회는 언제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할지 모른다.

### 3. 가정 사역의 요청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책이라 해도 좋다. 창세기 첫부분은 가정의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최종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혼인 예식과 가정에 대한 묘사로 끝나고 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묘사로 구약 시대를 마감한다. 그리고 신약의 첫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출생의 이야기로 신약 시대를 열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였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적인 용어로 채색시켜 놓았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혼에 대해 경고하고 잘못된 성을 책망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찰스 셸이 그의 저서 *Family Ministry*에서 이런 말을 한다. “문제가 있는 가정의 90% 이상이 성(性)문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월간지나 주간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에 영향을 입어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트로스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의중(意中)을 깊숙이 찌른 말이다.

즉, 교회는 선교세미나나 기도회만이 아닌 “부부 세미나” 또는 “밀월 여행” “성 세미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교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가정 목회는 그렇게 추상적인 구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돌볼 때 신자들의 부엌까지 챙겨 보았다는 말을 예사로 새겨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상(像)”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

내와 즐겁게 사는”(전 9:9)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결혼한 독신 남녀들이 참된 부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는 건전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회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것만이 미래 사회에 한국 교회가 신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가정 세미나가 선교 세미나만큼이나 많아지고, 선교사들 숫자만큼이나 가정 사역을 전담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평신도들이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한국 교회는 진정한 교회 성숙을 세계 교회에 또 한 번 과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향한 에너지를 질적 성숙으로 이어가야 할 때인 것이다.